

'10월 장흥' 볼거리·즐길거리 풍성

장흥군이 연이은 행사로 풍성한 볼거리를 예고하고 나섰다.

7일부터 13일까지 장흥군 안양면 비동리에서는 '2019 대한민국통합의학 박람회'가 열린다.

'건강한 삶의 길을 보여드립니다'란 주제로 진행되는 올해 박람회에서는 대학병원, 대학, 협회 등 120개 기관에서 다양한 의료진이 참가해 통합의학적 진료와 체험을 제공한다.

박람회장은 주제관, 통합의학1·2관, 건강증진관, 대체보완의학관, 의료산업관, 건강음식관 등 총 7개 전시관으로 구성됐다. 통합의학박람회에서는 건강한 삶을 위한 통합의료를 한 자리에서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다.

이어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장흥군 탐진강변에서는 '2019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가 열린다.

박람회는 잠재된 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지향적 산림정책을 홍보하고, '위라벨 시대'를 대표하는 산림 여가환경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람회장은 주제관, 산림경관관, 버섯생태관, 귀족호수전시관, 목재산업관, 숲카페 등으로 구성됐다. 주제관에는 남도무형문화재 목공예작품 한국의 산하를 주제로 한 회화작품과 산림청 주요 정책을 소개하는 디자인 부스들로 꾸며진다.



호남 5대 명산의 하나인 천관산에서 제26회 천관산 역사제가 열린다.

/장흥군 제공

7일 통합의학·11일 산림문화 박람회 개최

천관산 역사제·회령포 문화축제 등 잇따라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회령진성과 회령주변에서 열리는 '2019 회령포문화축제'가 개최된다.

올해 회령포문화축제는 '12적의 기적, 역사 속으로 가는 시간 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회령포는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통제사 교지를 받고 장흥으로 내려와 회령포 결의 가진 역사적 장소이다.

6일에는 호남 5대 명산의 하나인 천관산에서 제26회 천관산 역사제가 열린다.

천관산 정상 130만㎡ 능선 일대를 은빛으로 물들인 역사는 다도해의 풍경과 천관산 기암괴석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최고의 장관을 이룬다.

장흥군 군수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풍성한 10월의 정남진 장흥군에서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느끼고,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좋은 추억 만드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함평 멸종위기 야생생물 문화대전

내일부터 내달 10일까지 300여점 전시

함평군은 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37일간 함평자연생태공원에서 제10회 멸종위기 야생생물 문화대전을 개최한다.

함평군이 주최하고 환경부, (사)한국식지외보전기관협회 등 5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는 생물 자원보전에 대한 범국민적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행사는 오는 18일 개막 예정인 '2019 대한민국 국향대전'과 맞물려 다양한 전시행사와 공연,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생태공원 내 전시관에는 멸종위기식물 11점, 자생동식물 세밀화 35점, 자생화 40점 등 총 3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어린이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에는 공원 관람을 통해 6가지의 문제를 맞히는 퀴즈미션체험과 어린이 낚시 체험 등이 운영된다.

개막일인 5일과 13일 오후 2시에는 대표적인 멸종위기생물인 호랑이를 주제로 탈춤 공연이 진행된다.

이 밖에도 꽃씨엽서와 어린이 무료 관람권 1매를 증정하는 미션체험 특별이벤트도 상시 운영된다.

강박수 산림공원사업소장은 3일 "올해 행사는 아이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전시·체험프로그램 위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자연생태공원은 멸종위기 동·식물 27종을 보유해 지난 2008년 환경부로부터 서식지외보전기관 14호로 지정됐다.

공원을 통해 6가지의 문제를 맞히는 퀴즈미션체험과 어린이 낚시 체험 등이 운영된다.

개막일인 5일과 13일 오후 2시에는 대표적인 멸종위기생물인 호랑이를 주제로 탈춤 공연이 진행된다.

이 밖에도 꽃씨엽서와 어린이 무료 관람권 1매를 증정하는 미션체험 특별이벤트도 상시 운영된다.

강박수 산림공원사업소장은 3일 "올해 행사는 아이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전시·체험프로그램 위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자연생태공원은 멸종위기 동·식물 27종을 보유해 지난 2008년 환경부로부터 서식지외보전기관 14호로 지정됐다.

공원을 통해 6가지의 문제를 맞히는 퀴즈미션체험과 어린이 낚시 체험 등이 운영된다.

개막일인 5일과 13일 오후 2시에는 대표적인 멸종위기생물인 호랑이를 주제로 탈춤 공연이 진행된다.

이 밖에도 꽃씨엽서와 어린이 무료 관람권 1매를 증정하는 미션체험 특별이벤트도 상시 운영된다.

"한빛원전 격납건물 공극 부실 때문"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발표 1~4호기서 222개 발견

한빛원전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다수의 공극(구멍)은 건설 당시 부실하게 지어졌고 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빛원전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1일 영광군청에서 한빛원전 안전성 검증 조사 보고회를 열었다.

조사단은 2017년 5월 한빛 4호기 격납건물에서 공극이 처음 발견된 이후 전문 기관에 의뢰, 한빛원전 6기 전체의 공극 실태와 안전성을 조사했다.

한빛원전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다수의 공극(구멍)은 건설 당시 부실하게 지어졌고 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극은 한빛 1호기 14개, 2호기 18개, 3호기 94개, 4호기 96개 등 222개가 발견됐다.

조사단은 공극 발생 원인으로 건설 당시 격납건물의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한 철제 구조물인 '보강재'를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과정에서 다짐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한빛원전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1일 영광군청 대회의실에서 활동 결과 군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영광군 제공

또 공기를 단축하려 도면에 반영하지 않고 현장에서 무리하게 설계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격납건물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점 등을 들어 작업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방사능 누출, 격납건물 안전성 검증은 모두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다수의 공극이 발견된 3·4호기는 추가로 공극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안전

성을 확신할 수 없다며 한국수력원자력에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건설 당시부터 이어진 격납건물의 부실은 중대 사고 시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같은 부실을 발견하지 못한 한수원의 유지·관리 체계를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극 정비 작업으로 한빛 3호기는 약 500일, 4호기는 2년 넘게 가동을 멈춘 상태다.

/영광=곽용순 기자

함평 공공비축미 4,535t 매입 산물·건조·친환경 3개 품종

함평군이 쌀 수급 안정을 위해 4일부터 연말까지 올해산 공공비축미 4,535t을 매입한다.

올해 매입 품종은 산물벼, 건조벼, 친환경벼 등 총 3개 품종으로, 산물벼는 이달 4일부터 11월 16일까지 건조벼는 내달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

매입물량은 건조벼 3,795t, 산물벼 500t, 친환경벼 240t 등 총 4,545t이다.

매입가격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10월부터 12월까지의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올해 매입 대금은 우선지급금 대신 수매 직후 3만원(40kg 포대)의 중간정산금이 우선 지급되며 최종 정산금은 매입 가격이 확정된 이후 연말까지 일시 지급된다.

올해 역시 품종검정제가 실시된다.

매입대상 농가 중 5%의 표본 농가를 추출해 DNA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품종 혼입이 적발될 경우 향후 5년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친환경 벼 출하 농가 또한 잔류농약검사를 통해 농약이 검출되면 인증 취소와 함께 농가 회수 또는 일반벼로 전환 매입 조치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함평=윤예중 기자

나주농촌인력센터 일손 해결 '한 몫'

시·농협 공동 운영...인력 해소·일자리 창출 기여

나주시와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 등이 올해 5월부터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주농촌인력지원센터가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고민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인력센터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업 인력조달의 부담을 해소하고 동시에 도심 지역 유희인력에 대한 고용 창출을 도모하면서 도·농간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

3일 나주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농

촌인력지원센터를 통해 하우스 작물, 배, 복숭아 등 전체 1,188농가를 대상으로 약 5,720여 명의 인력을 알선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농협중앙회 나주농촌인력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또 농업에 관심이 있거나, 귀농을 희망하는 만70세 미만 누구나 농촌인력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해당 인력은 일자리 지원·교통비지급, 농·작업 교육 등을 지원 받는다.

/나주=이재순 기자

화순경찰 범죄피해자 지원 간담회

협조체계 구축 등 논의

화순경찰서는 지난 2일 청사 회의실에서 광주전남범죄피해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간담회 및 사례회의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범죄피해자 발생시 심리

상담지원 등 신속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와 사례회의를 통해 범죄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백형석 경찰서장은 "사회기관·단체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나누는 등 체계적인 범죄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서호령 기자

클릭! 고향 소식



나주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 열려

나주시는 최근 종합스포츠타마파크다목적체육관에서 관내 아동 보육 교직원들의 상호 단합을 위한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나주시 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

로 보육교직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백선주 회장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염규동 기자



영광 농촌마을 중소기업 가족연수

영광군은 최근 대창 농촌마을에서 농어촌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연계한 중소기업 가족연수를 실시했다.

연수는 '휴식있는 삶', '가족과 함께 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100여명이 참여

해 드론·가트체험과 농촌마을 숙박체험을 진행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곽용순 기자



함평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함평군은 최근 교육지원청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6개 기관과 민·관 합동 지도·단속활동을 펼쳤다.

합동 지도팀은 학교 인근에서 건전한 학교생활 홍보 캠페인과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를 점검했다.

또 업소별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 부착 여부 등을 확인하고 홍보전단을 배포했다.

/함평=윤예중 기자